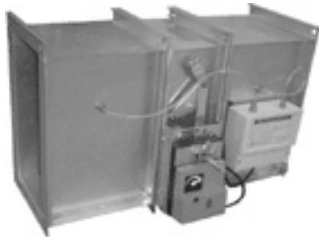


## 초보자를 위한 덕트 부자재

### 연재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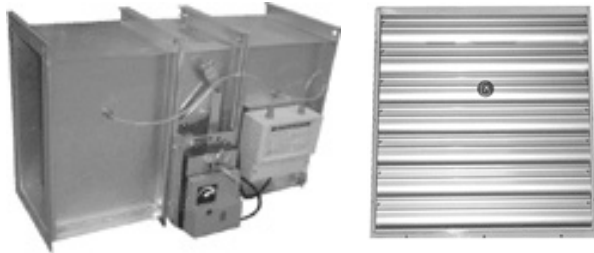
- ① 실별난방제어시스템, 온수분배기 : 2007년 6월호
- ② 익스펜션조인트 : 2007년 7월호
- ③ 배관용 강관 : 2007년 8월호
- ④ 동관 : 2007년 9월호
- ⑤ 초보자를 위한 스테인레스강관 : 2007년 10월호
- ⑥ 초보자를 위한 배관부속-엘보·티 : 2007년 11월호
- ⑦ 초보자를 위한 일반밸브 : 2007년 12월호
- ⑧ 초보자를 위한 일반밸브 ② : 1월호
- ⑨ 초보자를 위한 덕트 : 2월호
- ⑩ 초보자를 위한 덕트 부자재 : 이번호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재들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비슷한 제품을 우리가 시공하는 현장에는 어떤 제품이 적합한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 더욱이 제품 특징 및 단가 등이 알고 싶을 때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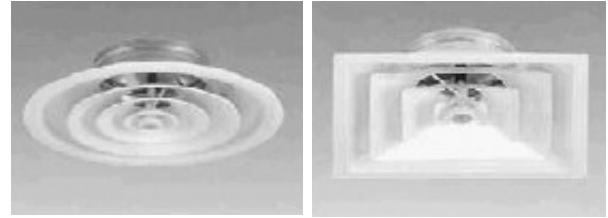
본지는 회원사의 설비자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호부터 특정 자재를 선정하여 제품의 특징, 회사명, 연락처 등을 담은 '자재의 모든 것'을 게재한다.

• 댐퍼



통과 풍량의 조정 또는 폐쇄에 사용되는 기구로 이를 풍량조정 댐퍼라 한다.

댐퍼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풍량조정 댐퍼, 방화 댐퍼, 방연댐퍼 등으로 구분된다.



종류	사용목적
풍량조정 댐퍼(VD)	주덕트의 주요 분기점, 송풍기의 출구측에 설치되며 풍량조절용으로 사용
방화댐퍼 (FD)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 내에 설치해 화재시 화염이 덕트 내에 침입했을 때 퓨즈가 용해돼 자동으로 폐쇄
방연댐퍼 (SD)	방연구역을 관통하는 덕트 내에 설치해 화재발생 초기에 연기를 감지, 댐퍼 폐쇄로 다른 방화 구획에 연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
방연·방화 댐퍼(SFD)	방연댐퍼와 방화댐퍼의 기능을 겸함 방연·방화·풍량조정댐퍼(SFVD) 방연, 방화, 풍량조정 기능을 겸하는 댐퍼

방식	분류	종류	설치예(설치모양)
천장취출 (하향)	광산형 (Ceiling Diffuser)	원형	아네모스텃형, 팬형, 노드라프트형
		선상	천장슬로트형, 브리즈라인형, T라인형, 트로퍼형
		각형	TCSX형, TMDC형, 아네모스텃형
	축류형	노즐	천장노즐형, 핑커루버
	다공판넬		전면천장취출, 멀티벤트 취출구
측벽취출 (횡향)	광산형(Wall Diffuser)	각형	유니버설형
		반원형	아네모스텃형
	축류형	노즐	벽설치 노즐
		가변방향노즐	핑커루버
	선상		슬로트형
상면 또는 취대 취출구 (상향)	광산형		슬로트형, 유니버설형

• 취출구(Diffuser)

기류를 취출하는 역할을 하며 천장, 측벽, 상면 또는 취대 취출 방식으로 구분된다.

• 흡입구



기류 흡입의 역할을 하며 설치 위치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설치위치	종류
벽	격자형(리턴그릴)
천장	격자형
바닥	머쉬룸형

덕트 부자재 제조업체

업체명	연락처	생산품목		
		댐퍼	취출구(Diffuser)	흡입구
(주)거성	032-572-5592	○	○	○
서광산업	032-674-7155	○	○	×
대양기연	02-2242-2772	○	○	○
선일엔지니어링	031-765-2984	×	○	×
오성풍력	032-761-0577	○	○	○
대경공조	031-339-8613	○	○	○
제일공조산업(주)	041-358-6667	×	○	○
(주)신한공조	031-989-4722	○	○	○



고사  
성어

鷄肋(닭 계, 갈빗대 립)

‘먹자니 먹을 것이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란 뜻으로 쓸모는 별로 없으나 버리기 아까운 사물을 이르는 말

삼국시대로 접어들기 1년 전(219)인 후한 말의 일이다. 위 왕 조조(曹操)는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원정을 떠났다. 익주(益州)를 차지하고 한중으로 진출하여 한중왕을 일컫는 유비(劉備)를 치기 위해서였다. 유비의 군사는 제갈량의 계책에 따라 정면대결을 피한 채 시종 보급로 차단에만 주력했다.

배가 고파 도망치는 군사가 속출하자 조조는 어느 날, 전군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 “계릭(鷄肋)! “계릭?”

모두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주부 벼슬에 있는 양수(楊修)만은 서둘러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한 장수가 그 이유를 묻자 양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닭갈비는 먹자니 먹을 게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한중 역시 그런 닭갈비 같은 땅으로 생각하고 철군을 결심하신 것이라오.”

과연 조조는 며칠 후 한중으로부터 전군을 철수시키고 말았다.